



〈카니발 로드〉의 저자 유경숙

파란만장 골드미스의 ‘공연’ 세계 일주

공연 기획자이자 문화 컨설턴트인 유경숙의 지난 1년은 범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했다. 배낭 메고 떠난 그녀의 공연 세계 일주 여정이 그대로 담긴 저서 〈카니발 로드〉가 기대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에디터 이승민 글 고나영(프리랜서) 사진 노현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여행을 사랑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여행 때문이었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반대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나 몰래 재미난 구경이라도 벌어진 건 아닐까... 오지랖이 넓어서 말이에요(웃음).” 어린왕자라도 만날 심산으로 겁 없이 떠났던 사하라 사막은 스물세 살 처녀에겐 광활함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마지막 루트였던 영국 에든버러는 문화마케터로 공연에 빠져 살게 한 연륙교가 된 섬.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만난 ‘난타’ 공연은 진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바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문화마케팅 9년 경력에 여행 경력 10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알뜰살뜰 모아둔 결혼 자금을 털탈 털어 세계 일주를 나선 유경숙이 375일 간의 여정을 〈카니발 로드〉(동아일보사)라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세계적인 공연 문화 트렌드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몸소 전 세계 41개국으로 뛰어든 것. 철저히 관객의 시각으로 만끽한 세계의 공연 체험담은 그녀처럼 열정적이고 활기차다. “낮에는 다른 배낭족처럼 여행을 하고, 저녁에는 공연장을 찾아 공연 삼매경에 빠졌죠. 공연도 빵처럼 나누는 이상한 나라 쿠바, 인디오의 연극이 관객을 울리고 웃기던 멕시코, 할머니들로 가득했던 독일의 클래식 공연장, 심장을 울리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공연 열기... 모두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고스란히 옮겨다 놓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세계의 거리를 배회하며 잘 된 공연, 못 된 공연을 닦치는 대로 보면서 거리든, 소극장이든 그저 관객만 있다면 어디든 무대가 되는 외국의 예술가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 적도 여러 차례. 그녀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만이 진짜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거침없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몇 천년에 걸쳐 서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연 문화를 거대한 양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의 부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풍요요, 선진국이라는 게 그녀의 변이다.

기대감과 부러움, 그리고 아쉬움은 여정 내내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북미에서 시작해 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를 거쳐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지친 심신 탓에 중도 하차하고 싶은 심정이 왜 한 번도 안 들었겠느냐는, 대륙을 건너고 도시를 옮기면서 새록새록 다가오는 이색적인 문화가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행운은 이탈리아 할머니 ‘마리아’를 만난 것이라고... “독일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스페인 마드리드 역에 도착한 날, 시리아 도둑에게 가방을 도난당했지 뭐예요. 남은 건 주머니 속 7유로와 유레일패스뿐. 발을 옮길 기력조차 없을 만큼 지쳤을 때, 마리아 할머니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저에게 많이 지쳐 보이니 집에서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더군요. 마리아는 당신이 젊은 시절 입었던 옷가지를 꺼내주었고, 갓 짠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를 주었어요. 사흘간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죠. 그 후로 더 밀도 짙은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만날 수 없었을 테고, 타지에서 의안 락하고 따뜻한 사랑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며 도리어 감사하는 그녀다. 본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마리아에게 받은 호의와 세상이 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더 좋은 문화 콘텐츠와 가슴 따뜻해지는 공연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금 다짐했다.

파란만장, 우여곡절, 그리고 백 만 가지도 넘는 에피소드... 결코 만만치 않았던 375일을 마치고 그 이야기가 담긴 따끈따끈한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 중이다. 이번에는 유럽만 1년이란 다. 디테일한 유럽의 공연 문화를 또다시 소상히 밝힐 요량인가 보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감각을 충만하게 쌓은 그녀.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또 그 키가 얼마나 자라 있을지... 〈카니발 로드〉의 다음 페이지만큼이나 그녀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

